

사설

문화재 관리에 국가적 관심을

최근 해인사 대장경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72년에 건립된 신판기가 햇빛에 노출되고 경판전의 통풍 흐름이 이상...

대장경 판각사업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문화를 수입해 중국인의 의식을 제고하고, 제불보살의 가피로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기 때문...

그러나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문화사의 지평을 확장한 고려대장경이 작금에 와서 쭉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이 나라의 문화의식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싸우는 것밖에 모르니...

문화는 환경과 인간이 대립과 조화 속에서 일체 된 타협점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문화의 양상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국문화는 그 표현방식이 여타민족의 역사이자 민족정기의 발현이 아닐 수 없다.

공약(空約)이 안되도록

대선을 불과 한달여 남겨둔 요즘 각 대통령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는 지난 10월 본지와외의 지면 인터뷰에서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면, 11-14일 불교 방송에서 열린 '후보 초청토론회'에서도 각종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기독교인들이 많다. 불교계가 무엇보다도 행정성 있는 종교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다름없이 기독교인이었던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종교편향이라는 불교관련 기구에서조차 불교인사의 참여를 배제한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교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불교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도 일단은 엿보인다. 문화재 관련공약도 불교계 요구에 맞추려는 시도를 높이 사고 싶다. 문화재 관련 공약은 불교계에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불교가 민족문화의 대부분을 보존하고 지켜온 종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불교전문문화 정보화 지원,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문화재 보수비 증액 등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 발전시켜가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계을전문연구원 '비니원' 개원

영산율원 고불식 대학원식 운영·율사양성 중추 역할

2~4년과정 마친 스님엔 율사자격



비니원 4명의 연구생 스님들이 입지계(立志偈)를 봉독하고 있다.

지계종토 진작과 율사양성을 목적으로 한 계을전문연구원이 개원했다. 대구 영산율원(원장 철우)은 지난 12일 파계사 진풍루에서 계을 연구원 '비니원' 고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은 "요즘 계을을 등한시 하는 승가의 경향에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비니원 스님들은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고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침체된 종단의 계을정신 보급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계단 위원 등각, 해충, 무관 스님 등 교계 중진급 율사 스님과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은 "요즘 계을을 등한시 하는 승가의 경향에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비니원 스님들은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고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침체된 종단의 계을정신 보급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합바탕 교계 귀감되게 운영"

인사부 13대총회 전반기회장 지하스님



"두 번이나 총회회장을 맡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총회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서로 화합해서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 열린 조계종 제13대 개원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전반기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사진)은 총회가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2대 후반기 총회회장에 이어 연속 총회회장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스님은 총회의 화합을 강조했다. 13대 총회가 어느 총회보다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의장의 역할은 총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회가 종단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12대 총회에서 폐기됐던 직능직 의원 선출 방식 개정문제는 총회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 문제는 다시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며 "총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비판에 대해서는 총회위원들 각자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는 "하루 속히 개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총무원장 학산스님 선출

법상종, 임시중앙총회서



대한불교 법상종은 10월 31일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2차 임시중앙총회를 열어 공석이던 총무원장에 학산스님(경기도 대성사 주지)을 민장일치

교육부장에 정산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선스님



교육원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8일 신임 교육부장에 정산스님, 불학연구소장에 법선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정산스님(사진)은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경도량 고려대장경 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내년예산 '일반' 164, '특별' 236억

각각 6.2, 152%증액...총회심의 거쳐 확정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조계종 중앙총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164억원으로 편성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일반회계 164억4천만원, 특별회계 236억3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 6.2%, 특별회계는 152%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155회 중앙총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무원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특별 직영 분담금을 동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한국불교총本山 상역화발사에 194억원, 중앙승가대 이전공사 마무리 및 대학원 설립 지원에 34억8천만원, 종단 정

보화 사업 기반 구축에 5억1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총무기조에 근거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분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5천여만원이 줄어든 141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중앙·특별 직영 분담금이 동결되고 관할로 분담금이 2억5천만원 늘어난 반면, 미수분담금이 3억3천여만원 줄어든 때문이다. 분담금 수입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5.8%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수입은 8천6백여만원이 늘어난 5억4천여만원, 재산수입은 1천여만원이 늘어난 7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 기획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올해보다 91% 증가한 1천3백여만원이다. 기획실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7억4천여만원이다. 이는 중앙선거위원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예산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며, 각 원의 세출예산은 총무원 70억원, 교육원 41억7천만원, 포교원 21억1천만원이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을 보면 사업비는 신규사업 또는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15.8%가 증가했고, 인건비는 인원 확충 및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5%의 급여인상분을 포함해 12% 늘어났다. 반면 보조금은 자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외부 단체 보조금 자연감소로 5.5% 감소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올해 93억여원에서 236억여원으로 152%나 증가한 것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연금 수입을 1백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6억원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현대) magazine,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reading and text about the magazine's conten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odern' (현대) magazine, list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Tongdosa' (통도사)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temple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Tongdosa Hwasang' (통도사 화엄) event, including dates,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